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8월 22일(금) 18:25 ㅣ 보도 일시 : 2025년 8월 22일(금) 18:25**

**BC카드 · 한경 레이디스컵 2025 2R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BC카드 · 한경 레이디스컵 2025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21일(목) ~ 8월 24일(일) |
| 3 | 장 소 | 포천힐스컨트리클럽 [가든(OUT) / 팰리스(IN)]  |
| 4 | 주 최 | BC카드, 한국경제신문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5억 원 (우승상금 2억 7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63야드-예선, 6,561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19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박현경, 홍정민, 이예원, 방신실, 노승희, 이동은, 김민선7, 이가영, 김민주정윤지, 배소현, 박혜준, 고지원, 박보겸, 유현조, 박지영, 김시현, 송은아서지은, 박민지, 장하나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노승희 2라운드 중간합계 14언더파 130타(65-65) \*공동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13>

**경기 소감?**

오늘은 중장거리 퍼트 거리감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썼고, 보기 프리 라운드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. 어제와 동일하게 7언더파를 기록하고 보기 프리 라운드를 해 기분이 좋다.

**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?**

우승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가짐은 같다. 나의 장점인 아이언 샷을 더 정교하게 하려 한다. 올해는 퍼트도 잘 따라와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고, 특히 중장거리 퍼트가 잘 들어가 성적이 좋아진 것 같다.

**퍼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?**

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리감이다. 매 대회 코스마다 그린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에 집중해 연습한다. 최근 좋은 성적도 거리감이 잘 맞아 중장거리 퍼트 성공률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.

**현재 사용 중인 퍼터는?**

작년까지 2~3년 같은 퍼터를 썼는데 올 시즌 초반 퍼트가 잘 안 돼 대회 중에 여러 개를 바꾸기도 했다. 지금 쓰는 퍼터는 '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' 때부터 사용 중인 커스텀한 퍼터다.

**쇼트게임이 좋아졌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?**

첫 우승 전 해까지만 해도 어프로치와 쇼트 게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그 해 전지훈련 때 쇼트 어프로치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고,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.

**마지막 조 플레이 경험이 많아졌는데 노하우가 생겼는지?**

처음 마지막 조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,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은 긴장보다는 순위를 끌어올리려 집중하는 편이다.

**◈ 이다연 2라운드 중간합계 14언더파 130타(64-66) \*공동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92>

**오늘 6언더파로 마무리했는데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는지?**

퍼트가 잘 따라와 버디를 많이 할 수 있었다. 날씨가 더워 후반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고, 그 부분 때문에 찬스를 만드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. 그래도 마지막을 버디로 마무리해 만족스럽다.

**하반기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, 비결은 퍼트인가?**

퍼트도 잘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샷이 많이 좋아졌다. 좋은 샷으로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어 퍼트 기회가 늘면서 성적이 좋아졌다. 지금은 아픈 곳 없이 경기하고 있어 남은 대회도 잘 준비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.

**샷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?**

아이언 거리가 늘었다. 상반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티 샷 실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실수도 줄어들었고, 아이언 샷도 좋아져 드라이브 샷을 무리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.

**우승 경쟁은 자주 하고 있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. 초조하지는 않은지?**

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. 부족한 점을 복기해 더 잘 준비하려고 한다.

**내일 목표하는 스코어는?**

개인 라이프 베스트인 9언더파를 치고 싶다. 최근 8언더파는 했는데 9언더파는 못하고 있어서 그 산을 한번 넘고 싶다.

**내일 각오?**

우승은 결국 누구의 컨디션이 좋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같다. 내 플레이에 집중하며, 준비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싶다.